

## 제1강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의 이해』 I

(1교시)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맥루언, 민음사

### 매체는 메시지다

Marshall McLuhan(1911-1980)의 『미디어의 이해』

#### 1. 맥루언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매체라고 정의하는가?

맥루언은 매체를 그 자체로 정의하지 않으며 외연적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다루는 매체는 컴퓨터 및 자동화 장치를 비롯해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도로, 종이, 수, 의복, 주택, 돈, 시계, 인쇄, 만화, 인쇄된 말, 바퀴, 자전거, 비행기, 사진, 신문, 자동차, 광고, 게임, 전신, 타자기, 전화, 축음기,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무기 등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창안한 유무형의 도구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도구는 분명 인간의 몸을 확장한 것들이다. 그런데 흔히 물질의 형태를 바꾸는 데 직접 쓰이는 생산 도구들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 인간의 발을 확장한 이동(운송) 도구들, 인간의 입과 귀를 확장한 의사소통 도구들, 인간의 두뇌를 확장한 기억 및 분류를 위한 인식적인 도구들을 매체로 여겨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매체들은 생산을 간접적으로 돕는 데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생산물의 교환과 소비를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매체들은 생산을 돕는 간접적인 도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생산 도구들은 매체 도구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체는 생산 도구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더 밀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생산 도구들도 인간의 확장이지만, 매체 도구들이 생산 도구들에 비해 더 정확하게 인간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생산 도구들보다 매체 도구들이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데 더 밀접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확장시킨 것은 인간에게 속한다. 인간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적극적

인 힘을 발휘한다.

## 2. 매체를 보는 맥루언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매체적인 또는 매체 구속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시공간의 변화, 의식 방식의 변화, 감각과 지각 패턴의 변화, 사회 구성의 변화(민족주의, 국가주의 등)를 통해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자 문화의 기술에서 서구인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행위하는 힘을 획득했다. ... 인류 전체를 우리 속에 통합시키는 전기 시대에, 우리 서구인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가져올 결과에 심도 있게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31)라고 하는데, 이처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유형의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을 철저히 매체에 의거한 것으로 보는 대목들이 즐비하다.

(2교시)



마셜 맥루언

“문자 문화의 기술에서 서구인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행위하는 힘을 획득했다. ... 인류 전체를 우리 속에 통합시키는 전기 시대에, 우리 서구인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가져올 결과에 심도 있게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31)라고 하는데, 이처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유형의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을 철저히 매체에 의거한 것으로 보는 대목들이 즐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인간들의 욕망을 새롭게 규정한다고 보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일으키는 가장 명백한 <폐쇄>나 심리적 작용은 다름 아닌 그 기술에 대한 수요이다. 자동차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동차를 원하지 않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전에는 아무도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처럼 그 자체에 대한 수요를 창조해 내는 기술의 힘은, 무엇보다도 기술이 우리 자신의 몸과 감각들의 확장물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117-8)

### 3. 맥투언의 문체와 논변 방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그의 논변은 두서너 가지 논거만을 바탕으로 대단히 거칠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논거는 대단히 놓치기 쉬운, 하지만 듣고 보면 대단히 기묘한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미국 신문인은 말의 속도와 직접성 때문에 전화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처리한다. 미국의 인기 있는 신문은 구술적인 것에 매우 가깝다. 이에 비해 소련이나 유럽의 신문인은 문인(文人)이다. 모순된 상황이지만, 문자 문화적인 미국의 신문은 상당히 구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술 문화적인 소련이나 유럽의 신문은 아주 강한 문자 문화적인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301)라고 분석한다. 미국인은 문자 문화적인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에서는 구술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반해, 소련이나 유럽은 구술 문화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을 통해 문자 문화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논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법들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순차적인 논리적 인과성을 띠고서 구사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모자이크적인 방식으로 숨가쁘게 제시되고 변모되면서 다각적으로 연결된다. 여러 시대의 여러 작가의 말이나 사건들이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논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목마다 그 창의적인 직관력과 순발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글쓰기는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 내리는 그의 진단과 일치한다. 그는 오늘날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전기 시대로 규정한다. 전기 시대는 탈중심화와 다양성 그리고 되먹임 그리고 자동화에 의해, 요소들의 독립성과 인과적인 연결을 넘어서서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적인 장(場)을 구성한다는 것이다.(490-495 참조) 그의 글쓰기는 이처럼 거대한 하나의 장을 형성하는 식이다. 그래서 그의 이 책은 어디서부터 읽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각 대목들이 책 전체와 빠른 속도와 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짜집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